

🌈 공개설정 🌈

" 히, 히이익~...! 뭐, 뭐예요, 쳐다보지 마세요...! "

[이름]

카멜라 세리나 *Camella Serina*

[외관]







밝은 갈색의 곱슬거리는 짧은 단발. 분홍색 눈동자. 동그랄지만 힘 없는 눈매. 축 처진 팔자눈썹.

[꿈의 ㅇㅇ]

시인

시를 짓는 사람. 또는 일반적으로 시를 써서 문단의 공인을 받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시인은 '언어의 마술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시는 10살 즈음부터 취미처럼 쓰기 시작했다. 시인이라는 직업을 갖게된 경위도 우연히 공모를 넣어보았다가 붙은 것 뿐이라 자신에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딱히 가지고 있지 않다.

대표작으로는 '물 속의 저주', '거울과 나'가 있다.

대체로 글이 길지는 않지만 사용하는 문체와 단어가 유려하며 이후 꼼꼼히 곱씹어보면 여운이 남는다는 평이 많다. 그가 주로 쓰는 시들의 분위기는 어딘가 비어있고 아련하며 쓸쓸하다. 물론 모든 작품들이 해당하는 말은 아니지만, 특히 대표작들은 그렇다는 듯.

[인지도]

★★★★☆☆

작품에 의한 이름의 인지도는 꽤 있는 편이지만 정작 작가에 대해서는 필명인 유파토리(Eupatori) 이외에 알려진 바가 없다. 그 흔한 sns 계정도 만들지 않으며 인터뷰조차 없다. 때문에 그 이미지는 베일에 싸여있었다.

[나이]

22

[국적]

미국

[키 / 몸무게]

156.6cm / 45kg

[성격]

“ 싫은데요... 별로, 하고싶지... 않아요...”

▶ 부정적인 + 까칠한 + 겁쟁이

자신에 대한 시선에 상당히 민감하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특히 더. 어떻게든 없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며 때문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 관심갖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로 큰 예가 대화. 그를 방치하는 주변인들은 흔히 그가 자신의 세계에 빠져있다고들 말한다. 그들 또한 그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원래 그런 아이였지. 하고 자주 넘기기 일수이다. 집안에서도 그런 그를 굳이 밖으로 데려가 타인과 교류하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세리나 집안의 성격과 주변인들의 방치가 연쇄작용으로 일어난 탓일까. 누군가와 말 섞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한다 한들 자신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

▶ 자신감 없는 + 소극적 + 중립적인

무언가를 다같이 결정해야할 때, 다수의 의견에 물흐르듯 따라가는 것이 일상이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자기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더 크다. 무조건 남들이 본인보다 더 옳고,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에 대한 신뢰감 또한 가지고있지 않다.

[기타]

▶LIKE : 밤이 올라간 몽블랑, 생크림 스크, 아늑한 곳

▶HATE : 시끄럽고 복잡한 곳, 말이 많은 사람

- 시짓기 이외의 취미는 쿼트공예, 그림그리기. 그런데... 그림 실력이 상당히 처참하다. 물론 본인은 잘 모르기에 그가 직접 도안을 짜 만든 인형들은 하나같이 찌그러진 감자처럼 생겼다.
- 프랑스 부모님에게서 유년 시절을 캐나다에서 보냈으나 현재는 미국으로 거주지를 옮겨 미국 국적으로 되어있다. 불어, 영어, 약간의 한국어와 일본어가 가능하다.
- 시인이라는 직업 외 다른 직업은 딱히 없는 듯 하다. 간간히 아르바이트만 하는 정도이고 그조차도 오래 이어나가지를 못해서 주로 집에만 있다.
- 모두에게 ~(성)씨 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존댓말을 쓴다. 말투는 대체로 까칠하지만 상대가 상처받을 정도로 막말을 하는 타입은 아니다. 가족 외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에 서툴러 자주 말을 더듬는다.
- 눈물이 많다. 굳이 슬픈 일이 아니더라도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등등의 상황에서도 자주 눈물을 보인다.
- 집안과 친척 등의 가까운 주변인들과도 교류가 매우 적지만, 그외의 다른 타인과는 소통은 더더욱 드문 일이었다. 그래서일까, 누가 본인을 불러도 잘 알아듣지 못한다. 한 박자 늦게 반응하기 일수.
- 생일은 11월 6일, 혈액형은 AB형.
- 정확한 키는 156.6cm이지만 항상 157이라고 묘하게 우기곤 한다.

[소지품]

- 가방 (다이어리, 펜, 손수건)
- 초대장